

게시일 : 09월 18일

09월 3주차

CEO의

월간 희망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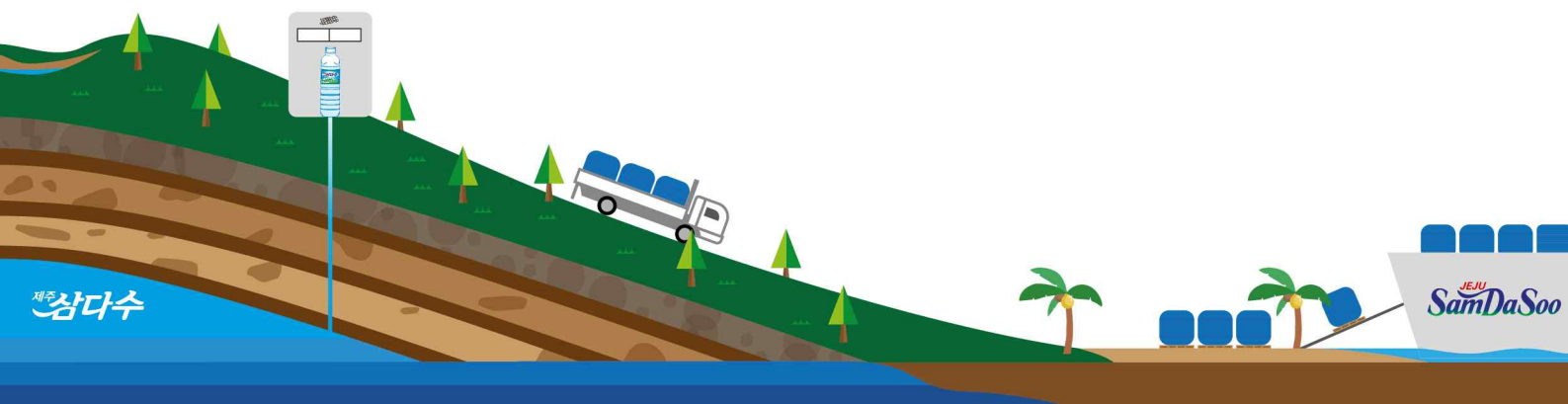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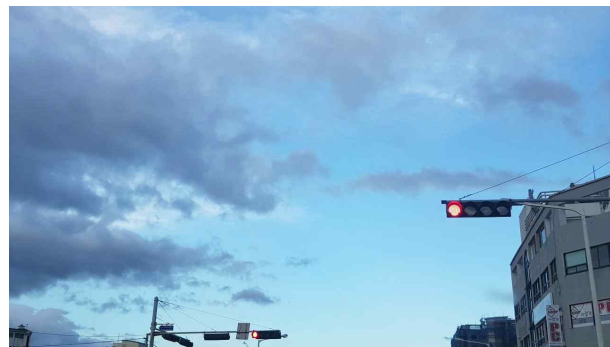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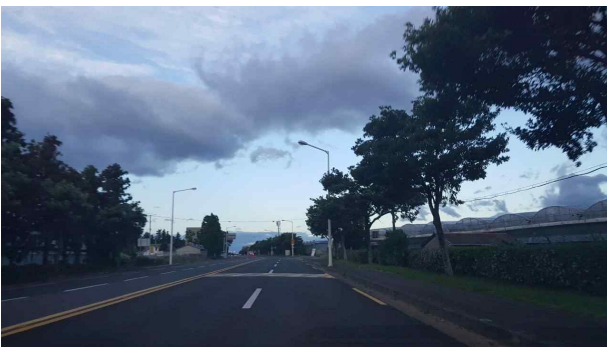
별초 단상(斷想)

지난 토요일엔 밤새 노심초사했습니다. 태풍 '탈림'이 새벽3시가 절정이라고 방송에서 나오고, 저녁 늦게까지 비바람이 뿌려 비록 굴 밭에 단비라 농가엔 좋겠지만, 바람세기가 더 세지면 공장에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고, 항공기 결항 시 관광객을 위해 삼다수 몇 팔레트를 공항에 준비도 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올지 몰라 뒤척거렸습니다.

또한 '내일 별초 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~'하고 토요일 밤, 잠을 깬 때마다 밖을 쳐다보며 아침엔 비와 바람이 그치길 바랬습니다.

마치 우산장사와 짚신장사의 자식을 둔 부모심정처럼, 해갈에 도움 되는 비는 내리되 태풍바람은 잦아들기를 바라는,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

일요일 새벽 6시가 지나면서 비가 잦아졌습니다. 다행이었습니다. 서귀포까지 갈려면 한 시간 걸리기에 별초복장으로 주섬주섬 차려입고 나섰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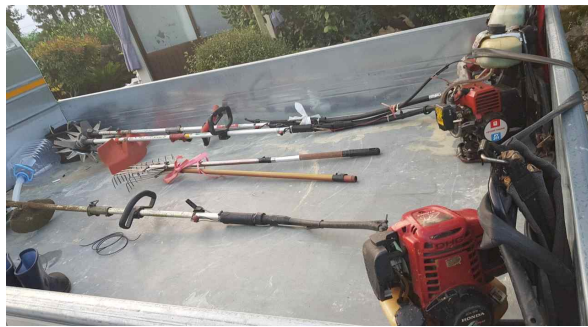
성판악을 지나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없고 시커멓던 하늘이 서서히 파란빛으로 맑아지고 있었습니다.

7시쯤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어느새 하늘이 흰하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.



고향집 뒤 굴밭을 한 바퀴 돌아보니 밤새 비를 머금은 굴들이 빗방울로 화장을 한 채, 반갑게 맞이하는 듯 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. 조금 있으니 비는 아주 작은 가랑비로 변하면서 저 멀리 서귀포 바다 쪽엔, 하늘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.

얼마 없어서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도착하고 그들은 벌초할 예초기를 간단히 손봤고 곧이어 산소로 출발.



태풍 물러가고 비도그치고 날씨도 좋은 어제.

이 모든 게 조상님께서 돌본 것 같아, 오늘 벌초엔 더욱더 정성스레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가족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.

우리들은 각각 맡은 바 벌초를 시작했습니다. 긴 풀은 예초기로, 짧은 풀들은 호미로 봉분이며, 그 주위의 풀들을 자르고 자른 풀들을 멀리 내다버렸습니다.



말끔하게 묘 주위를 정리하고 나서 비석 옆에 간단한 차례상을 놓고 절을 하였습니다.
온가족을 보살펴주신 조상님께!

별초 후 점심은 온 식구가 모여들어 함께했습니다.

땀 흘린 후 소주한잔을 주고받는 가운데 요즘 살아가는 사정들을 나누었습니다.



별초는 가족끼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.

추석 때도 다시 만날 것이지만 땀 흘리고 나니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오붓함을 느꼈습니다.

오후 들어서는데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,

하늘은 짙~하니 맑아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버린 어제.

조상 덕에 자손들이 잘 지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.